[UCI]I804:24011-200000237918

2009년 2월
교육학석사(미술교육)학위논문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도법 연구

-광주광역시 중학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임 주 리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도법 연구

-광주광역시 중학교 중심으로-

A Study of Teaching Method of The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Actual State of Korean Painting: Focusing on Middle School in Gwangju Provinces

2009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임 주 리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도법 연구

지도교수 김 종 경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미술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임 주 리

임주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사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8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

제2장 이론적 접근을 통한 한국화의 이해 ····· 4

제1절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 ····· 4

제2절 한국화의 종류와 표현방법 ····· 11

제3장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내용 ····· 19

제1절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 19

제2절 2007년 개정 고시된 미술교육과정 ····· 22

제4장 미술교육과정에서 한국화 교육의 실태조사 ····· 29

제1절 미술교과서의 한국화 내용 분석 ····· 29

제2절 설문지를 통해 얻은 조사 분석 ····· 34

제5장 한국화 교육의 지도 방법 ····· 50

제1절 교수 학습 방법 ····· 51

제2절 내용 영역별 지도 ····· 53

제6장 결론 ····· 58

참고문헌 ····· 60

부록(설문지) ····· 62

표 목 차

<표-1> 미술과 목표 체계 ····· 25
<표-2> 미술 교과 내용 영역 ····· 26
<표-3> 집중 이수 전후의 교과 주당 수업 시수 ····· 27
<표-4> 중학교 미술교과서 본문에 실린 한국화 도판수 ····· 30
<표-5>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 ····· 32
<표-6> 광주광역시 미술교사 실태 조사 ····· 35
<표-7> 미술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능력 정도 ····· 37
<표-8> 미술 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인식 정도 ····· 38
<표-9> 학생의 한국화 인식정도 ····· 39
<표-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 ····· 40
<표-11> 한국화 수업 시수(2007년 개정 교과 전망) ····· 41
<표-12> 한국화 이론과 실기비중(2007년 개정 교과 전망) ····· 42
<표-13> 한국화 실기 지도 실태 조사 ····· 43
<표-14> 현행 교과서 실태분석 ····· 45
<표-15> 중학교 현장의 한국화 교육 여건 ····· 46
<표-16> 한국화 감상 영역 학습 실태 ····· 48
<표-17> 한국화 교육의 개선점 ····· 49

그 림 목 차

[그림 1] 경남 울주군(반구대) 벽화 ····· 6

[그림 2] 고구려 사신도 ····· 7

[그림 3] 안견의 몽유도원도 ····· 9

[그림 4] 겸제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옥순봉도 ····· 12

[그림 5] 김홍도의 타작도와 신윤복의 주막풍경 ····· 13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Method of The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Actual State of Korean Painting

-Focusing on Middle School in Gwangju Provinces-

Ju-Lee Lim

Advisor :Prof. Jong-Kyoung Kim Ph. D.

Major in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final purpose of fine arts education is in order to raise the whole person who has the critical thinking ability and can improve the inheriting culture in own's way. and it is to promote imagination, sensibility and creativity.

With at this point, considering that the age of middle school is important time to searching and establishing the traditional art based on national identity of korea.

However, so far, fine art education at middle school have laid too much emphasis on western fine art and teachers have not interested and understanded to education our traditional korean art and culture as well as

student. And recently in the wave of the globalization, it's difficult to protect our traditional korean art and culture.

Therefore, there are many attempts to preserve the traditional art in the field of fine art education.

At this point, the seventh curriculum in fine arts education emphasize contents of learning for promote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korean art and culture

This study check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korean painting education by analysis on actual state in middle school fine art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how middle school art education of korean traditional art has been performed, analyzed the present situations problems and role of textbooks, and suggested solutions.

To conclu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leading students to correctly understand our traditional culture and making them improve the inheriting tradition in middle school art classe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의 미술교육은 지난 시대적 변천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와 더불어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 표현중심 미술 교육 이나 자유표현을 중시한 창조주의 미술교육, 미적 체험과 미의식 함양·이해와 감상교육을 강조한 이해중심 미술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미술교육은 현재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이 서양 미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와서 서양화는 우아하고 세련된 미를 가졌다고 느껴왔다. 반면 학생들은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낮아서, 한국화는 오히려 낯설고 다가가기 힘들다고 느끼기도 한다. 이 시점에서 한국화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전통문화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육의 목적은 심미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미술의 표현과정과 감상은 인간의 인격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미술교육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미술교육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 상상을 통해 심미적인 인격수양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중등학교시절에 미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또한 이 세대에게 한국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길러주므로 한국화 미술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서구 지향적인 서양화교육의 결과 한국화는 오래되고 낡은 것이라는 인식 속에 외면 받고 소외되어 왔다. 그 결과 우리 미술교육은 민족의식이 결여된 교육 문화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창조적인 계승발전보다는 주변 문화를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전통문화 교육은 종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인우로서 긍지를 가지며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통미술 교육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통미술교육은 우리 조상들이 남긴 미술문화유산의 독창성과 우월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나아가 주체적인 문화의식을 폭넓게 심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미술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하고 그 중 전통미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다. 각 학교의 미술 교사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 중 한국화를 전공한 교사는 거의 없어서, 교사의 한국화 지도 능력은 부족 할 뿐만 아니라 한국화 지도 자료나 용구 부족으로 인하여 전통 문화 교육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은 개편되어 전통 문화 교육과 문화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한국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화 전공 미술교사의 부족과 한국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개정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반영하여 한국화에 교육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기 위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중등교육에서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 한국화의 종류, 표현방법을 소개한 후 3장에서 미술교과 개정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4장의 한국화 교육을 위한 중등학교의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5장에서 한국화 교육의 창의적인 지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등학생들로 하여금 한국의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높게 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전통문화를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새 교육과정 개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철학과 체제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수시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적용상의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다.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은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인의 주체성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데 역점을 두면서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재 중등미술 교육에 있어 한국화

교육은 미술 교과서에 단편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서양화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은 한국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경시하는 경향마저 있다. 이러한 인식뿐만 아니라 한국화 수업을 하기 위한 학교 시설이 부족하고 교과서에도 한국화는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국화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일시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술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2009년부터 실시되는 새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한국화 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와 한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한국화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화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한국화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고시된 새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성격과 개정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중등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행 7종 교과서의 한국화 영역을 분석·조사하여 한국화교육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중등학교 미술교육 실태분석을 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조사하여 한국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2007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한국화 학습 지도에 있어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술교육에서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중등미술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의 제반여건 및 지도방법에 있어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들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한국화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과 창의적인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제한 연구하였다.

제2장 이론적 접근을 통한 한국화의 이해

제1절 한국화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 한국화의 개념

한국화란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적 기법과 양식에 의해 다루어진 회화를 말한다. 한국화란 명칭이 정착되기까지는 변천과정이 있었다. 1922년 제1회 선전(1944년 제23회로 끝남)시대에는 조선총독부의 규약대로 '동양화(東洋畵)'라 칭하였다. 선전에서는 동양화・서양화・서(書) 및 사군자 3부로 나누어 접수하였다. 일제의 압박 하에 한국적인 그림보다는 일본화풍(日本畵風)을 강조하고 서양과 구별되는 의미에서 '동양화'라 칭하였다. 해방 후 1949년 제1회 국전(1981년 제30회로 끝남)을 시작으로 그림에서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전에서는 동양화와 서양화로 양분하여 접수하였다. 1950년 1월 김화경(金畵境)은 신문 기고에서 일본화(日本畵)와 구별되는 그림으로 '동양화로서의 한화(韓畵)를 부르짖었다. 그런가 하면 1971년 청강 김영기(淸江 金永基)는 '한국화론'을 제창하였다. 그의 저서 「동양미술론」에서 '나의 한국화론과 그 비판해설'이란 제목으로 국적과 주체성이 뚜렷한 명칭, 즉 '한국화'를 사용하자고 건의・발표 하였다. 1982년 제1회 미술대전 때부터 여러 화가들의 진정과 요구에 의해 '동양화'는 한국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한국화'로 지칭케 되었다.[1]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적인 동양화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전통미술에 대한 주체성 확립과 문화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회복하려는 한국화에 대한 재인식이었다. 또한 한국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중국화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에 그친 적은 없다. 오히려 이를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그들과 구별되는 고유색 짙은 미감(美感),

1) 노경상,『한국화 백문백답』, (서울 : 錦湖文化, 1995,), pp.53-54.

독자성과 개성이 뚜렷한 화풍을 이룩해 왔다.[2)]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화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또 그것을 교육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현대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새 화풍을 창조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전통미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한국화는 자연 풍경을 중심으로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선을 위주로 한 그림과 여백의 미를 강조하여 시각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고 암시적인 함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여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와 자유로운 상상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기도 한다. 또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의 정신을 표현 했다는 점과 눈앞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그림이기보다는 대상과 작가의 정신성을 중시한다.

한국화의 특징은 한국의 정서와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

첫째, 이상주의적이라기보다 감상적이며, 즉흥적, 생활적, 풍류 적이다. 삼국시대부터 자연주의에 기조를 두고 있으므로, 한국화는 자연을 직관적으로 해석하고 요약해서 대상을 생략하기 때문에 화면은 간소한 추상적인 형태를 이룬다.

둘째, 한국화는 선(線) 위주이다. 서양화에서 선은 물체의 윤곽을 그리는 보조 수단에 불과하나 수묵화에서는 선 자체가 곧 형상을 이룬다.

셋째, 여백과 공간을 살린다. 묵화에서 여백은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서 남겨놓는 공백으로 단순히 칠하고 남은 종이 흰 부분이 아니라 조형성과 기의 흐름과 같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여백이란 너무 크고 너무 많아 담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무한의 시공을 넘나들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이다. 지극히 좁은 인간의 시각과 지각 능력 밖의 표현과 또한 장소와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백이란 조형 언어로 시각화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넷째, 모든 색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색이 먹의 색이다. 먹의 색은 흑(黑)이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모든 색을 포함하고 검은 색과 흙의 색이 합쳐진 개념의 색이다. 이러한 먹색의 변화는 자연스러움과 은은한 아름다움을 준다.[3)]

다섯째, 감상화에서 채색의 사용은 수묵 위주의 담채(淡彩)가 주류를 이룬다. 조

---

2) 이원복, 『회화-한국美의 재발견』, 서울: 솔, 2005, p.27.
3) 김정아, “중등 미술교육에서의 한국화 지도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석사논문, 단국대학교, 2005, pp.3-4.

선 초 이암의 <모견도>는 동화적인 분위기에 모성애가 짙게 풍기는 그림이다. 사용된 채색은 강아지 목에 달린 붉은 줄과 금색 방울을 제외하고는 수묵뿐이다. 우리 산천을 그린 정선의 <금강전도>역시 먹과 담청(淡靑)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조선의 화선(畵仙)'으로 지칭되는 김홍도의 풍속화도 그러하다. 물론 한국의 옛 그림 중에도 화려한 진채(眞菜)를 사용한 그림들이 없지는 않다.[4)]

2. 한국화의 역사적 전개

우리나라 회화의 미술초기 발달과정은 대상의 생명성을 표출하는 주술적 행위와 종교심의 표출된 구상과 추상적 조형의 선사시대 벽화로 추정되는 경남 울주군(반구대) 벽화로부터 시작된다.

[그림 1] 경남 울주군(반구대) 벽화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단조로운 가운데 소박하고 명랑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신석기 미술과 청동기 미술을 비롯하여 삼국시대로 계승되면서 예술적 역량이 축적되어 갔다.

4) 이원복, 전게서, p.30.

삼국 시대의 회화 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수많은 유물들이 인멸·유실되어 일반 회화는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없으며, 벽화 형식의 기념비적 회화들이 일부 남아서 당시 회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특히 4세기경 축조된 고구려시대의 고분에 다양한 내용의 벽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고구려 초기의 무덤 벽화에서는 인물풍속화와 함께 상상화, 특히 사신도가 뒤섞이다가 고구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사신도가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다.[5)]

[그림 2] 고구려 사신도

출처: http://cafe.daum.net/bimeelcafe/4pM5/185

그리고 7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극도로 섬세해진 사신도는 거의 완벽한 조화를 통한 세련미와 상상의 동물로 꿈틀거리며 벽을 차고 나올 듯 생동감에 넘친다. 고대 세계의 특수한 생활상의 종교적인 축제를 그린 이 벽화에는 유명한 사신도(四神

5) 김순영 등, 『조선 미술사』, 서울:학민사, 1987, p.52.

圖)를 비롯해서 인물화, 행차도, 춤, 씨름, 다도(茶道)의식, 사냥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들이 펼쳐져 있다.

백제에서도 회화가 발전 하였으나 유물이 남아있지 않으며, 몇 개의 벽화 무덤이 보존되어 있는데, 사신도와 천정벽화인 연꽃, 구름무늬 벽화, 연꽃, 주작, 비어 등은 고구려 무덤벽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려진 것을 실증해주는 자료들이다. 신라에서도 일반 회화 유물은 전혀 없고 다만 연꽃 그림과 인물화 등 고구려 무덤벽화의 영향을 받은 그림과 말다래에 그려진 장식화로 당시 회화의 발전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뿐이다.

발해 및 후기 신라 시기 회화 유물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전해지고 있지만 비상한 회화적 재능과 풍부한 창작적 경험을 가진 고구려 화가들이 이룩한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었고, 또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하고, 그들 속에서 배출된 재능 있는 화가들로 인해 이 시기 회화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발해는 무덤 벽화형태로, 신라에서는 지상건물의 벽화 형식으로 중요한 회화형태로 자리를 차지하였다. 또 일반 감상 회화 작품들도 창작되어 회화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 졌는데 소나무, 자위 등의 자연경치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로서 발해의 대관지를 들 수 있다. 또한 정화, 홍계 김충의, 반마려, 복마려 등 유명한 화가들로 다른 나라에 까지 회화발전에 영향을 준 화가들도 있었다.

이런 그림들은 그 뒤 불교 시대의 사찰 벽화로 이어지거나 또는 민간에서 그 명맥이 이어졌던 무당 무신도(巫神圖)로 계승되어진다. 불교 시대 미술은 사찰의 외벽이나 내벽, 천정을 장식했던 이 그림들은 흑이나 돌, 판벽(板壁) 위에 그린 벽화이기도 하고 종이나 천위에 그린 탱화양식의 그림으로 교화(敎化)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다.[6] 일반적으로 불교미술에서는 인물이 주제가 되고 인물의 성격, 이른바 부처나 보살의 연기 설화를 표현하면서 그 과정에서 건물이나 구름, 나무, 산, 바위, 꽃과 같은 자연대상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이나 도구로 쓰였다.[7] 조선조 후기에 들어 실학사상이 대두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던 민화(民畫), 부적(符籍) 그림 또는 풍속화가 모두 이 고분 벽화의 맥락이다. 오늘의 현대

6) 박용숙, 『한국미술사 이야기』, 서울:예경, 1999, p.273.
7) 상게서, p.295.

한국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렬한 채색의 경향도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이 자산(資産)위에서 있다고 해야 옳다.[8)]

고려시대의 미술(10~14세기)은 내용의 풍부성과 형상의 진실성, 새로운 예술수법의 탐구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12세기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불교회화의 비현실주의적인 장막을 뚫고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였고, 민족회화의 고유한 화법들을 더욱 풍부히 하였다. 고려 시대의 화려하고 섬세한 채색화의 창작은 우리나라 회화발전에서 커다란 미술사적 의의를 가진다.[9)] 또한 유교 양반들의 배불감정을 반영한 인물주제화 분야와 풍경과 식물, 동물 등 자연을 묘사한 회화가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의 미술(15~19세기)은 성리학적 가치론이 강조된 상태에서 사대부들의 회화관으로 확립되었고 국초부터 도화원이 설치되고 체계 있게 운영되어 한국화는 날로 발전하였다. 회화 분야에서 현실적 소재들을 취급한 인물주제화, 풍속화, 산수화 등과 채색화 창작이 억제되었고, 봉건통치계급의 사상 미학적 지향과 그들의 기호와 취미를 반영한 수묵 또는 수묵담채로 그려진 모고주의(模古主義)적 풍경화와 주관주의적 사군자도가 성행하였다.[10)]

조선 초기(1392~1550)에 안견은 중국의 곽희파 화풍을 토대로 자가의 독자적 세계를 구축하였고 그의 화풍은 조선대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 3] 안견의 몽유도원도

출처: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

8)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 (서울:대원사, 1996), p.12.
9) 김순영, 전게서, *p.214.*
10) 김순영, 전게서, *p.250.*

그의 대표작 “몽유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에 거닌 도화원을 그린 현실과 환상의 낙원을 그린 그림이다. 소위 높은 데서 내려다 본 조감도법(鳥瞰圖法)을 써서 그린 안견의 걸작이다. 구도, 깊이 있는 공간 처리, 시각의 변화, 고원과 평원의 대비 등 환상세계를 한국적인 화풍으로 구현하였다.[11]

조선중기(1550~1700)에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과 같은 국란 시대였지만, 안견 화풍을 계승하고 농담을 적적하게 구사하고, 해조묘(蟹爪描)의 소나무 등을 그린 절파계(浙派系) 화풍이 김명국, 이경윤 등에 의해 유행하였다. 이 시기에 창작된 회화작품에서는 인간과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풍경화에 있어서도 종래의 모방주의적, 도식주의적 경향을 타파하고 실제의 조국산천을 구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이전 풍속화와 달리 이 시기에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17001~1850)는 민족적 사실주의 회화론이 형성된 시기로 주체성이 한껏 고양된 한국화의 르네상스시대다. 이 시기는 가장 한국적이고도 민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화풍들이 풍미하였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회화는 세종대의 조선 초기의 회화와 더불어 훌륭했다. 조선 초기의 회화가 송・원대 회화의 영향을 바탕으로 한국적 특성을 형성했던 데 반하여 후기의 회화는 명・청대 회화를 수용하면서 보다 뚜렷한 민족적 자아의식을 발현했던 것이다.[12] 조선 후기 정선의 진경산수화는 실경산수화를 중국과 달리 독자적인 화풍으로 구현시켰다.[13] 18세기 후반기에 활동한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김정희 등 많은 재능 있는 화가들은 근로대중을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

조선 말기는 회화분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지만 19세기 중엽에 타계했지만 말기 화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김정희 등을 축으로 말기 화단의 이색화풍과 조선 삼대화가로 왕조의 말미를 장식한 오원 장승업을 비롯하여 김수철과 홍세섭 등 활동하였다.[14]

---

11) 노경상, 전게서, P.232.
12) 최몽룡 등, 『한국미술의 자생성』, 서울:한길아트, 1999, p.652.
13) 상게서, p.224.”
14) 이원복, 전게서, p.80.

조선 후기까지의 미술교육은 인격 수양을 위한 수단으로 시·서.·화를 익히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도제과정을 통해 스승의 기법을 전수 받는 사설 도화서를 통해서 화원들을 양성하였다

제2절 한국화의 종류와 표현방법

1. 한국화의 종류

가. 재료와 용법에 따른 구분

한국화는 재료와 구체적 용법에 따라 수묵화(水墨畵)와 수묵담채화(水墨淡彩畵), 농채화(濃彩畵)로 구분된다.

수묵화는 화선지에 수묵의 농담 위주로 그린 그림으로 물과 먹물이 화선지에 스며들고 번지는 효과를 이용하여 표현되고, 채색을 하지 않는 점에서 수묵담채화와 다르다. 수묵화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작가가 주관적이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예로부터 동양인의 미의식과 사의(寫意)를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그림으로 알려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묵화 중 문인화가 고려 후기에 나타나서 조선시대에 성행하였고, 중국은 당나라 때 문인화가 시작되었다.

수묵담채화는 문인화가들이 많이 그린 그림으로 먹색의 농담 효과를 살린 수묵화에 담담하고 엷은 채색을 더한 그림이다. 먹선을 그은 후 채색을 하기도 하고 채색 후 먹선을 사용하여 번지게 하여 그리기도 한다.

진채화는 화원들이 그린 장식화나 기록화에 주로 나타나는데, 먼저 먹 선으로 형태를 그려 놓고 채색을 진하게 하여 채워나가는 기법이다. 먹색을 쓰기는 하나 채색이 주가 되도록 하고, 먹의 사용을 줄이고 계속 덧칠하여 채색을 두텁고 진하게 칠한다.

수묵화와 채색화의 차이는 바탕재의 성질이다. 수묵화는 화선지에 먹이 스며들게

그리고 채색화는 분채에 아교(阿膠)를 썩어 비단이나 장지 위에 그린다. 현대의 채색화는 서양의 유화와 비슷한 진채화라 할 수 있다.[15]

나. 소재에 따른 구분

한국화는 소재에 따라 산수화(山水畵), 인물화(人物畵), 풍속화(風俗畵), 사군자(四君子), 화조화(花鳥畵), 어해도(魚蟹圖), 초충도(草蟲圖), 영모화(翎毛畵), 기명절지화(器皿折枝畵) 등 아홉까지로 구분된다.

산수화는 특히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실경을 소재로 한 그림이다. 산수화는 서양의 풍경화와는 달리 단순한 자연경관을 그린 것이 아니다. 산수애(山水愛)와 조화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그려졌다.[16] 산과 물, 나무와 바위 등 자연의 경치를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에 맞추어 그리고, 경치와 함께 인물, 풍속, 누각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산수화의 본질은 진(眞), 즉 참이다. 산수화에 나타난 상징과 은유, 비유를 통해서 자연, 우주, 인간의 삶의 지혜 등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림 4] 겸제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김홍도의 옥순봉도

출처: http://blog.daum.net/octagon/2349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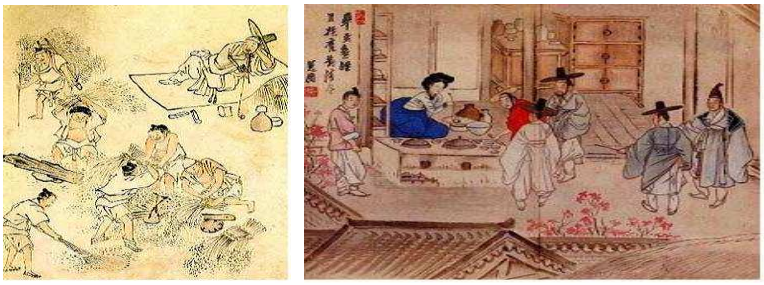
산수화에는 몰골법에 의한 수묵산수화와 구륵법에 의한 채색 산수화가 있다. [그림 4]에서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는 한국적 실경으로 생활 주변과 진경산수를

15) 민족문화대백과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웅진출판사, 1994), p.133.
16) 이원복, 『회화-한국美의 재발견』, 서울: 솔, 2005, p.23.

그렸다. 반면에 추사, 소치, 고람, 북산 등은 문인기질로 절제와 일필의 정신세계를 그리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소림 조석진과 심전 안중식은 조선 말 산수화가로 청말(淸末) 산수화의 형태를 답습하였다.[17]

인물화는 초상화, 고사 인물화, 도석 인물화 등 인물을 주제로 그려진 작품이다. 초상화는 어느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동양에서 예로부터 감계적(鑑戒的), 정교적(政敎的), 기록적(記錄的) 목적을 지니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인물화 중 숭배 대상으로서 제왕이나 성현, 충신, 효부 등 특정인의 초상화가 크게 발달하였다. 동양회화에서 초상화법는 '전신(傳神)론'으로 불리었는데, 인물의 사실적인 외형묘사에 그치지 않고 인격・기질・품위 등 성정(性情)을 드러내야 한다는 화론이다.[18] 고사 인물화는 옛 이야기 속의 인물을 주제로 하여 그 인물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을 담고 있다. 도석 인물화는 도교의 신선도나 불교의 신(조사도와 나한도)들을 주제로 그린 그림으로 종교적으로 숭배할 만한 대상의 초상이나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진한 채색화도 있으나 대부분 형태를 집약적으로 묘사한 수묵화가 많고, 붓을 많이 대지 않고 최소한의 필선을 사용하여 자유분방하고 재빠르게 그려내는 감필법을 사용한다. 풍속화는 일정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풍속과 취미 등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그림 5] 김홍도의 타작도와 신윤복의 주막풍경



출처: http://blog.naver.com/aldi200/10014435732

17) 노경상, 전게서, p.67.

18) 전신(傳神)이란 대상 속에 숨겨진 정신을 그려낸다는 것이다. 전신은 전신사조(傳神寫照)가 줄어서 된 말로 중국 동진의 고개지가 처음 사용했다 하난. 이는 대상의 본질과 영혼을 읽어야 하는 화가 자신의 직관적 통찰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미, 『中國傳神論小老』, 한국미학회, 1978, p.39.

[그림 5]처럼 풍속화를 통해 조선 후기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풍습을 복원 할 수 있고, 조선 후기의 시대정서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와해되는 과정에서 민중과 양반의 일상생활이 동일하게 풍속화에 소재화로 나타난 것은 근대사회의 인본주의를 엿볼 수 있다. 민중의 삶을 비롯한 인간의 일상을 탁월한 예술성으로 구현해 내었다.[19]

사군자는 매, 란, 국, 죽(梅蘭菊竹)을 지칭하며 군자에 비유한다. 절개 있고 품격 높은 시사로 어리석고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곧고 바른 군자의 미가 은은하게 숨어있는 그림이다. 사군자는 문인사대부들의 삶을 고양시키고, 그 마음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식층을 중심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예술적 교양의 하나로 여겨지면서 시문과 서예와 함께 일상생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화조화는 직업 화가들이 꽃과 새를 주로 그린 그림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새들을 화사한 꽃과 함께 그린 장식적인 그림이다. 또한 수묵 위주의 유연한 정경을 그린 문인화도 있다. 화려한 꽃과 새 그림은 다분히 장식적이어서 결혼이나 회갑연에 병풍이나 액자로 방안을 치장하였다.[20]

어해도는 물고기와 갑각류 등을 소재로 그린 그림을 지칭하는데 물고기로는 숭어, 방어, 잉어, 붕어, 메기, 송사리, 홍어 등이 그려져 있고, 갑각류로는 게, 거북, 조개, 새우 등이 해초와 물속 바위 틈 사이에서 짝지어 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초충도는 꽃과 과일 등에 나비, 잠자리, 벌, 여치를 그린 그림으로 풀과 벌레를 주제로 한 그림이다. 12세기 전반에 고려청자의 문양에 회화성 높은 초충도가 그려져 있어 고려시대부터 그려졌으리라 짐작된다.

영모화는 원래 새 그림만을 지칭했지만 현재는 화조화나 동물화도 모두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양화에서는 산수과 인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영모화는 화본(畵本)을 통해 익히거나 이들을 그대로 베껴 그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이기에 사생(寫生)에 의해서 화폭에 옮겨지

19) 이태호, 『조선후기회와의 사실정신』, (서울 : 학고재, 1996,), p.139.
20) 노경상, 전게서, p.77.

는 일이 많았다. 이런 까닭에 독자적인 화풍을 형성하고 고유한 민족 정서를 표출하는 데 있어 보다 수월하고 자유로운 분야이기도 했다.[21]

기명절지화는 입체감을 위해 음영기법을 사용하며 진기한 그릇이나 제기, 과일, 꽃, 화초나 문구류 등을 짜임새 있게 배치하여 그리는 그림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장승업을 중심으로 하여 이한복, 조석진, 안중식, 이도영 등의 근세화가들이 즐겨 그렸으며 선비의 서재에 주로 걸렸다.

2. 한국화의 표현 방법

가. 묘사법

한국화를 그리는 방법 중 먹이나 붓으로 칠하는 묘사 방법에 따라 구륵법(鉤勒法)과 몰골법(沒骨法), 백묘법(白描法), 감필법(減筆法) 등이 있다.

구륵법은 구륵진채법이라고도 하며 형태의 윤곽을 선(線)으로 먼저 그리고 그 안을 먹이나 채색으로 메우는 기법이다. 이 방법은 옛날부터 사용되어온 전통적 동양화 화법이다. 특히 중국의 5대 이후의 화조화에서는 화전(黃筌)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기법으로 '황씨체' 라고도 부른다.[22] 구륵법은 인물화・국화・산수화・매화・불화 등에서 즐겨 사용 하였으며 섬세하고 꼼꼼하게 물상의 외형을 묘사하여야 사실감이 난다.

몰골법은 구체적인 필선을 회화에서는 골(骨)이라고 하는데, 몰골은 필선을 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윤곽선으로 먼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채색이나 먹으로 그린 그림으로 선염(渲染)을 사용하여 화면효과를 올리는 화법이다. 몰골법은 붓을 단숨에 내려 긋는다던가 또는 농담의 조절로 형태의 외곽을 내부와 동시에 그려가는 방법이다. 먹과 색의 농담만으로 그림을 그리는 수묵화가 몰골법인데 화조화・산수화・사군자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

21) 이원복, 『회화-한국美의 재발견』, 서울: 솔, 2005, p.25.
22) 노경상, 전게서, p.133.

백묘법은 엷고 흐릿한 곳이 없이 먹으로 선만을 그리는 화법을 말하는데 색채나 음영이 없이 오직 윤곽선만으로 대상을 그리는 기법으로 인물이나 화조를 말한다. 진상(陳常)과 조맹부(趙孟頫)가 즐겨 사용한 방법이다. 대표적인 백묘화로는 단원의 '풍속도', 오원의 '인물화', 이명욱의 '어초문답(魚樵問答)' 등이 있다.

감필법은 서예의 방식을 회화에 응용한 것인데 필선을 최소한으로 줄여 대상의 핵심만을 활달하게 묘사하는 방법이다. 본래 감필은 글자의 자획을 줄여서 스는 생필(省筆) 또는 약필(略筆)의 뜻이었다. 대표작으로는 김명국의 '달마도'가 있다.

나. 한국화의 기법

한국화의 기법 중 용필(用筆)과 용묵(用墨)은 한국화에서 가장 중요하다. 용필법은 붓을 중앙으로 오게 해서 쓰는 중봉(中鋒)을 많이 쓰는데, 바르게 가지런히 쓰는 것을 직필(直筆), 가늘게 쓰면 세필(細筆), 거칠게 사용하면 조필(粗筆), 옆면으로 쓰는 것을 측필(側筆), 거꾸로 뒤집어쓰면 역필(逆筆)이라고 한다. 또한 입으로 그리는 구화(口畵)도 있고 붓끝을 마음껏 쪼개어 쓰는 파필(破筆)법이나 발가락으로 그릴 수도 있다.

용묵법은 작가의 개성과 함께 화선지의 질과 먹의 성질에 따라 다르게 된다. 용묵법은 건필(乾筆), 윤필(潤筆), 선염법(渲染法), 적묵법(積墨法), 파묵법(破墨法), 발묵법(潑墨法), 삼묵법(三墨法) 등이 있다.

건필은 먹을 듬뿍 묻혀 사용하는 윤필과는 반대되는 기법으로 물기가 거의 없는 붓으로 먹을 조금만 묻혀 사용하는 방법이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권돈인의 '세한도'에서 나무와 집의 표현에서 건필을 사용하였는데 탈속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느낌을 준다.

윤필은 건필과 반대되는 기법으로 갈필과 대비되는 의미로 붓에 물기가 많이 배어 먹 색깔이 축축하게 윤기가 나는 기법을 말한다. 전이정의 '수향귀주' 그림에서 유필 기법이 잘 표현 되어 있다.

선염법은 바림법인데 화선지에 먹이나 안료에 물을 섞어 각 단계의 점진적인 농

담변화가 보이도록 축축히 번지듯이 마르기전에 덧칠하여 우려내는 기법으로 붓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선염법은 안개나 구름 등 몽롱하고 연한 신비의 색을 내는 방법이다.

적묵법은 먹을 칠하고 마른 담묵 위에 차츰 진한 먹을 칠한다거나 거기를 먹으로 바리거나 하여 먹을 층층이 겹친 중후한 느낌을 낸다.

파묵법은 먹의 농담 차이를 여러 단계로 나타내는 기법인데 물로 먹을 깨뜨리거나 농묵으로 담묵을 파하는 등 역대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 파묵법의 기법이 사용된 그림으로는 이한철의 '방화수류도'에서 잘 표현 되어 있다.

발묵법은 먹을 쏟거나 뿌리고 떨어뜨리면서 먹의 농담과 수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번지는 자유분방한 효과를 내는데 임희지의 '난죽'세부에서 잘 표현된 기법이다.

삼묵법은 짙은 먹색의 농묵(濃墨)과 중간 먹색의 중묵(中墨), 가장 흐린 먹색의 담묵(淡墨)을 삼묵법이라 한다. 농묵은 간결하면서도 힘 있는 느낌을 주며 먹색이 옅어질수록 가벼우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에 적당하다.

다. 산수화의 준법

준법은 수묵화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묘사 방법으로서 주로 산수화를 그릴 때 산이나 바위, 언덕에 주름을 그려 입체감과 명암, 질감 등을 나타내기 위해 표면을 처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준법은 대자연의 체험이며 산수화가들은 이런 준법을 자기화 시켜 활용하고 있다. 작가들의 그림에서 자주 보는 몇 가지 준법으로 피마준(波麻皴), 부벽준(釜劈皴), 해색준(解索皴), 절대준(折帶皴), 미점준(米點皴), 우점준(雨點皴), 몰골준(沒骨皴) 등이 있다.

피마준은 마(麻)의 껍질을 줄기로 가르는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길게 긋는 선을 뜻한다. 남종화에서 산을 그릴 때 사용하였다. 이 준은 남당시대 거연(巨然)과 원(元)의 황공망(黃公望)이 사용하였다.

부벽준은 도끼로 나무를 찍었을 때 생긴 면처럼 수직의 단층이 부서진 산석이나

바위를 그리는 선이다. 큰 도끼로 찍은 듯 보이면 대부벽준, 작은 도끼로 찍은 듯 보이면 소부벽준 이다. 바위를 그릴 때 자주 쓴다. 남송의 이당과 마하파가 사용했다.

해색준은 노끈을 갈기갈기 풀어놓은 것처럼 그리는 선이다. 원대(元代)조맹부가 사용하였다.

절대준은 ㄱ자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선을 그어 수직으로 내려 계단처럼 층을 이루는 선이다. 원의 예찬이 창시했다.

미점준은 쌀 모양으로 점을 옆으로 다소 굵게 찍어 그리는 준이다. 북송의 미불(米芾)이 사용했다.

우점준은 빗방울처럼 찍은 타원형의 점준 이다. 풍화가 심한 산이나 양강(陽剛)의 미(美)를 표현하는 준이다. 흙보다 돌이 많은 억센 산을 그리는데 사용한다. 범관(范寬)이 기후가 건조한 화북지방의 황토암석을 그리는데 사용하였다.

몰골준은 선이나 구륵의 사용 없이 먹의 농담으로 그린 준이다. 화전(黃筌)이 사용하였다.

그 밖에 긴 선으로 연잎의 수맥처럼 내려 긋는 하엽준(荷葉皴), 구름봉우리가 뭉게뭉게 감도는 모양의 운두준(雲頭皴) 등 수많은 준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준은 갈필로 먹을 아껴서 진하게 그린 다음 그 사이에 담묵(淡墨)이나 색으로 번지게 한다. 준은 산의 명암・음양・세력・기운을 나타내는 중요한 필법이다.[23]

23) 노경상, 전게서, pp.130-132.

제3장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과 내용

제1절 미술과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학교 교육이 시작된 것은 갑오개혁(1894) 이후이다. 1885년 개화기를 맞아 소학교령이 공포되어 새 교육의 시도가 강조되면서 초보적 미술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교육이 도입되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어 철저히 차별화 교육이 실시되어 우리 민족의 사상이 말살됨과 더불어 한국 회화전통은 위축되게 되었다. 1945년 광복과 더불어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서구의 교육사조가 유입되었지만 미술교과는 여전히 일제 침략기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은 1955년 '중학교 교과 과정'이 제정 공포되어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학생의 생활, 경험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일상생활과 산업에 필요한 조형 예술과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기초적인 기능을 얻어 생활을 명랑하고 여유 있게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평화적이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미술과 지도 내용은 표현 활동, 이해 활동, 감상 활동, 기술 활동의 네 면으로 구성하고, 활동별 교재에 내용 영역과 학년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였다.[24]

제2차 교육과정(1963～1973)은 경험주의 교육과정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미술 교과에서는 자기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풍요로운 인간상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미술교과 목표는 첫째, 창의적인 구상과 표현을 통하여 창조 생산하는 즐거움을 가지게 하고, 표현 의욕을 높이도록 한다. 둘째, 조형활동을 통하여 미술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풍부히 하고, 창의적인 표현 능력과 기술을 체득하게 한다. 셋째, 조형 능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아름답고 합리적으로 미화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가지도록 한다. 넷째, 조형품을 널리 감상함으로써

24)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4.6.10, p.46.

조형미를 이해하고 미적 정서를 높여, 이를 아끼고 보존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제1차 교육과정의 이해 영역이 없어지고 전반적으로 표현 활동이 강화 되었다. 교과 내용은 묘화, 조소, 디자인, 공작, 도법, 서예, 감상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학교 목표, 학년 목표를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지도 내용에서도 지도상의 유의점을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25]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한국적 미술 교육을 정립하기 위해 교과 내용을 체계화하고 다양한 표현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술 명칭을 통일하고, 다양한 표현 방법. 기법을 습득하고 전통 미술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학년 목표는 회화, 조소, 구성, 디자인, 공예, 서예, 감상 영역별로 학년 발달 수준에 따른 학년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1981~1987)은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를 문교부 고시 형태로 개선하여 사회적 변화, 제3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교육 개혁 조치 등을 반영하였다. 지나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반성으로 인간중심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결합시켜 개정하였고,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강조하는 전인교육을 강조하였다. 미술교육의 목표를 조형의 기초적인 표현 및 감상 활동을 통하여 미적 정서와 창조성을 기러 품위 있는 인격을 함양하고, 우리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며, 애호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26] 기본 방향은 국민정신 교육의 이념 강조, 창의성 발달 강조, 미적 정서 강조, 아동의 주체성 강조를 두었다.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은 문교부 고시 제87-7호로 개정 고시되었고 종래의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인간 중심 교육과정,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였다. 즉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 교육과정의 장점을 조화롭게 반영하였으며 미술 교육에 있어 다양한 조형경험을 통해 개성적 인간을 육성하여 감성의 풍부성과 창조성을 강조하였다. 미술교과의 목표를 조형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하게 하여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자연 및 조형품의

25)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Ⅳ)," 『교육부』, 1999.8.25, p.149.
26) 상게서, pp.152-153.

가치를 발견하고 애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은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정·고시되었고 미술과는 미적 교육의 정신을 반영하여 미술의 본질을 회복시키면서 미술을 통한 감성적 체험에 의한 인식과정을 통한 전인적인 인간 형성을 강조하였다. 또 내용역역에서 미술과 생활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느낌과 상상 나타내기, 붓글씨로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들기, 작품 감상의 6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27]

미술교과의 목표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아, 애호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능력, 여러 가지 재료 및 용구의 특성 파악, 미술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능력 신장의 4개항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은 1997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개정 고시되었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별 수준에 따른 다양성을 만족하기 위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을 채택하였다. 미술과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요구를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미술을 보고 느끼며 전통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적 미술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감상 교육을 강조 하였다. 미술교과의 목표로 미술 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 함양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적 대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해하고,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미술 문화유산을 존중하는 하위 목표를 제시하였다. 내용 영역에서는 미술과 생활 영역을 확대 발전시켜 미적 체험 영역으로 제시하였고 표현, 감상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학습량을 최적화하고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여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하여 구성하였다.[28]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미술교육은 시대 변화와 더불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지만 한국화 교육은 학생의 전인적 인격을 형성하고 다양한 표현 능력 계발과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주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바지 하도록 강조되어야 한다.

---

27)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Ⅳ)", 『교육과학기술부』, 2008.4.1, p.191.
28) 교육부, 전게서, pp.159-160.

제2절 2007년 개정 고시된 미술교육과정

1.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

2007년 개정 미술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미술 교과의 특성을 살려 바람직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 데 두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의 연속성과 연계성 및 통합성을 고려하여 미술교육에 대한 안목을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은 미술과 관련 학문의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 육성,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의 중요성 강조, 교육과정의 명료화, 학생의 실태에 맞는 미술 교과 내외의 통합적 경험의 수용 등이 개정의 기본 방향이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부분·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여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전면적, 일시적으로 개정에서 벗어나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문화적 경향과 다양한 이해 집단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29] 사회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2009년에는 초등 1·2학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해 2010년에는 초등 3·4학년 중 1학년, 2011년에는 초등 5·6학년 중 2학년 고 1학년, 2012년에는 중 3학년 고 2학년, 2013년에는 고 3학년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은 학문의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다.

첫째, 미적 인식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하도록 미술과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교 미술 교육에서는 자신과 세계를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둘째,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시각 환경은 학습자들의 생활 속에서 좋고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아직 성장 과정

29)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205.

에 있는 학습자들이 시각 환경은 올바로 이해하고, 선별해서 보며, 자신의 삶 속에 이를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셋째,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해석되어 계획되고 실행된다.

넷째, 미술 학습이 학습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즉, 미술 학습과 생활 경험, 미술과 다른 교과, 미술과 다른 예술, 미술 교과 내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의 통합 등을 통해서 의미 있는 미술 학습이 되도록 한다.[30]

2.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2007년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의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제7차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체제를 유지하며 일관성 있게 구성하도록 한다.

둘째, 제7차 미술교육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개성, 창조, 정서 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의 성격과 함께 미술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도록 한다.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 사고, 정서를 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사고를 공유할 수 있다.

셋째, 미적 정서와 미적 인식 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줄 수 있도록 미술과 목표를 구성하도록 한다. 미술의 표현과 감상에서 기본이 되는 미적 감수성, 미술 활동에 필요한 표현 능력 및 비평 능력, 미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하려는 태도를 총괄 목표로 제시하도록 한다.

넷째, 미술과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학년 군별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다섯째, 제7차 미술과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 구분의 내용구조를 그대로

30)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180.

유지하면서 각 영역의 필수 학습 요소를 선정할 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도록 한다.

여섯째,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을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표현 영역에서는 영상 표현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키며, 감상 영역에서는 지역의 미술 문화를 비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일곱째, 미술과 내용이 학년 군별로 계속성, 계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영역별 세부 내용을 학습자가 나타낼 성취 목표 형태로 진술하도록 한다.

여덟째, 새롭게 바뀐 목표와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를 안내하고, 미술 교사가 교수·학습과 평가를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항목별 지침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31]

3.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의 목표와 내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의 총괄목표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미적 감수성과 직관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미적감수성과 창의적 표현능력,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미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인 창의성과 표현 능력을 '창의적 표현 능력'으로 합쳐 제시하고 있고, 감상영역에서도 심동 적이고 인지적인 측면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비평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과 관련된 3개의 하위 목표와 이를 종합하고 연계되면서 미술의 생활화와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31) 교육과학기술부, 전게서, p.195.

<표-1> 미술과 목표 체계[32]

총괄목표-미적감수성, 창의적 표현능력, 비평 능력, 미술 문화의 향수 능력과 태도			
하위목표	가. 비적 감수성 (미적체험 영역)	나. 창의적 표현 및 소통능력 (표현 영역)	다. 미술의 가치 이해와 판단 능력 (감상영역)
하위 목표	라. 미술의 생활화와 미술 문화 존중		

뿐만 아니라 미술은 그 시대의 문화를 기록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미술문화를 통하여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나아가 문화의 창조와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 교육의 성격은 첫째, 생활 속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의식의 체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정보, 환경, 생명 등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갖게 한다. 둘째, 다양한 동기 유발을 통해 표현의지를 주고 주제, 표현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재료와 용구 등의 표현 요소와 표현 계획, 수행, 반성 등의 표현 과정, 표현의 확장에 관한 체계적인 탐색과 자기 주도적인 표현 활동으로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나타내게 한다. 셋째, 미술 작품을 비롯하여 시각 문화 환경에 대한 미적 반응이나 판단을 토대로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며, 문화유산을 미학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자긍심을 기러 전통 미술 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게 한다.[33]

미술 교과 내용 영역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으로 이루어지면 7차 교육과 개정된 내용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32) 노경상, 전게서, p202.
33)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3], 2007.7.31, p.2.

<표-2> 미술 교과 내용 영역

영역	중학교 제7차 교육과정 내용[34]	2007년 개정교육과정 내용[35]	비고
미적체험	(1) 자연미와 조형미의 조화 이해-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과 조화 이해하기	(1) 자연 환경-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의 조화에 관하여 이해하기	미적 체험 영역의 범위를 시각 문화 환경으로 확장
	(2) 미술과 생활의 관계 이해-생활에서 미술의 기능과 역할 이해하기	(2) 시각 문화 환경-시각 문화 환경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기	
표현	(1) 주제표현-주제의 특징과 목적 등을 생각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1) 주제 표현-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표현영역의 내용 적정화 표현방법에 재료와 용구 포함 표현 과정 도입
	(2) 표현 방법-평면과 입체의 특징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2) 표현 방법-여러 가지 재료와 용구, 표현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3) 조형요소와 원리-조형요소와 원리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3) 조형요소와 원리-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4) 표현 재료와 용구-주제나 표현 방법에 알맞은 재료와 용구를 선택하여 활용하기	(4) 표현 과정-표현 의도에 알맞은 표현과정을 계획하기	
감상	(1) 미술품 감상-서로의 작품과 미술품에서 표현 특징을 찾아 비교해 설명하기	(1) 미술 작품-미술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기	감상 영역에서 서로의 작품과 작가작품을 미술작품으로 통합비평 활동 강조
	(2) 미술 문화유산 이해-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미술의 특성 이해하기	(2) 미술 문화-미술 문화의 기능과 역할 을 이해하기	

34) 노영자, 『중학교 미술1학년 교사용 지도서』, 서울:교학사, 2000, pp.6-7.
35) 교육인적자원부, 전게서 p.5.

제7차 미술과의 미적 체험, 표현, 감상 영역 구분의 내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영역에 있어 문화적·사회적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미적 체험영역에서는 최근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각 문화 환경을 필수 학습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은 미적 체험영역 뿐만 아니라 표현, 감상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표현 영역에서는 표현 활동을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학습할 수 있는 '표현 과정'을 그리고, 영상 표현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감상 영역에서는 종합적인 감상 능력을 기러주기 위해 '미술 작품'과 '미술 문화'를 필수 학습 요소로 하고, 지역의 미술 문화를 비평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서 '교과 집중 이수제'를 운영함으로서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제7차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국민공통기본 교과 및 선택 과목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를 증감하여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제7차 교육 미술과 수업시수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집중 이수제 관련 지칭에 따라 대, 중, 소규모 학교의 편성 모형 사례를 비교하여 직접 <표-3>을 작성해 보았다.

<표-3> 집중 이수 전후의 교과 주당 수업 시수

학 년		7-1	7-2	8-1	8-2	9-1	9-2
제 7 차 교육과정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대규모 학교	0시간	0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중규모 학교	0시간	0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소규모 학교	0시간	2시간	0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007년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에서 미술교육의 성격·영역·목표 면에서 제7차와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학교장의 재량으로 수업 시수를 집중 편성함으로서 교육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제7차 개정에서 수업시수의 단축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미술 분야에 대한 정서 교육을 이루지 못한 점을 미술 수업시수의 효율적인 배정으로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4장 미술교육과정에서 한국화 교육의 실태조사

제1절 미술교과서의 한국화 내용 분석

현행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후 7종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출판사별로 단원의 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술교과서의 내용은 미적체험 영역과 표현 영역, 감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원명도 출판사에 따라 자율적인 어휘로 구사하고 있다.

미술 교과서는 도판 중심으로 구성되어 학습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감상하고 참고도판 및 설명을 통하여 제작과정 및 표현 감상에 있어 창조적 사고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 한국화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2007년 개정과정에 따라 현행교과서의 한국화 영역에서 수정되고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술 교육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서양화와 더불어 한국화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있는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기반과 새로운 미술교육의 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검인정 교과서의 7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중학교 미술교과서에 실린 한국화 도판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표-4> 중학교 미술교과서 본문에 실린 한국화 도판수

출판사	학년	미적체험	표현	감상	교과서 외	한국화도판	총수	전체도판	비율
교학 연구사	1	1	11	6	3	21	52	338	15.4
	2	0	11	1	2	16			
	3	1	10	4	0	15			
교학사	1	0	10	3	2	15	54	337	16.0
	2	0	13	6	2	22			
	3	1	6	9	1	17			
두산	1	1	4	0	2	7	39	336	11.6
	2	1	9	5	1	16			
	3	0	13	1	2	15			
대한 교과서	1	0	3	7	0	10	25	336	7.4
	2	1	7	2	1	11			
	3	0	4	0	0	4			
삶과꿈	1	4	2	8	1	15	46	338	13.6
	2	1	10	5	1	17			
	3	1	2	11	0	14			
지학사	1	0	16	3	2	21	52	338	15.4
	2	0	15	4	2	23			
	3	1	6	0	1	8			
중앙 교육	1	1	9	9	2	21	68	337	20.2
	2	1	19	0	2	22			
	3	1	22	0	2	25			
계		18	202	84	322	336	336		
수록도판(%)		5.3	60.1	25.0	9.5				

위 표에서 보듯이 미술교과서에서의 한국화 도판의 수를 미적체험 영역과 표현 영역, 감상영역으로 나눠서 분류되어 있으며, 각 교과서마다 참고 작품의 수는 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화 도판이 가장 많이 수록된 단원은 '표현 영역' 단원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어 표현 단원에 한국화 참고 작품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현 단원의 페이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영역에서는 참고작품과 더불어 표현기법에 관한 설명과 소단원으로 구분하여 표현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 학습자를 돕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감상영역'이 25%를 차지하고, 이 영역에서는 미술사의 흐름을 파악하며 이해하도록 참고도판이 수록되어 있으며, '미적체험' 영역은 5.3%로 적은 양의 도판의 분포되어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도판이 많았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것은 교학연구사와 삶과 꿈 각 1개 학년과 대한교과서 2개 학년을 제외한 7종교과서 대부분이 교과서 앞, 뒤표지에 한국화 작품을 수록하고 있으며 차례부분에서도 수묵화 및 수묵담채화를 수록한 교재가 있었다.

<표-5>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

출판사	학년	인물	정물	민화	사군자	풍속	산수	기타	전체	계	수록도판(%)
교학연구사(주)	1	1	2	0	0	3	9	6	21	52	15.4
	2	2	0	0	1	0	5	8	16		
	3	2	0	8	0	2	0	3	16		
교학사(주)	1	2	1	3	0	3	2	4	15	54	16.2
	2	2	6	3	0	3	5	3	22		
	3	1	1	1	1	2	8	3	17		
두산(주)	1	0	2	1	0	1	3	0	7	39	11.7
	2	1	0	0	0	2	10	3	16		
	3	2	0	7	0	0	1	3	19		
대 한 교과사(주)	1	1	1	1	0	1	4	2	10	26	7.44
	2	1	1	1	0	1	2	6	11		
	3	2	0	2	0	0	0	0	4		
삶과꿈(주)	1	0	1	2	2	4	3	4	16	46	13.6
	2	0	0	2	2	2	7	6	17		
	3	2	1	0	2	1	8	0	14		
지학사(주)	1	3	1	3	3	1	7	4	21	52	15.6
	2	2	1	1	0	5	10	4	23		
	3	2	0	2	0	0	4	0	8		
중앙(주)	1	2	1	1	2	3	8	3	21	68	20.4
	2	3	4	4	4	0	6	3	22		
	3	3	0	0	0	0	6	9	26		
계		33	23	45	16	35	107	71	336	336	
수록도판(%)		9.82	6.85	13.4	4.8	10.4	31.8	21.1			

위 표에 의하면 주제별 도판 수 분석표에서 산수화가 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21.1%로 추상적인 표현이나 동물화, 화조화 등을 기타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민화의 경우도 13.4%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수묵화 영역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민화에 대한 예술적 가치와 우수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재평가 받고 있는 듯하다.

풍속화도 1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출판사 대부분 교과에 김홍도 작품 위주로 수록되어 있다. 그 다음 인물화의 경우 9.8%로 윤두서 작품의 '자화상'과 김명국 작품의 '달마도'가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정물화, 사군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화 기법별 도판 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수묵담채화에 47.6%로 편중되어 편성되어있고, 채색화가 32.1%, 수묵화가 20.2%로 나타났다.

다음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미술교과서에서의 한국화 교육의 실질을 위해 개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교과서에서 수록의 비중이 적은 미적체험 역역에 있어 학생들의 한국화 활동사진이나 한국화와 관련된 인터넷 관련 사이트 등등 학생들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교과서 마다 보통 한 페이지에 평균 4개 이상의 참고도판이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작품을 시각적으로 접할 수 있지만 학습자의 입장에서 도판의 크기가 너무 작아 학생들이 감상하고 느끼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술교과서에 수록된 한국화의 작품을 살펴보면 보통 조선 시대의 회화 작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로 하여금 한국화는 단지 한 시대의 산물로 인식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전통 미술의 화풍이 한국화 교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겠지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 주제, 기법, 재료 등 변모하는 현대의 한국화에 맞는 작품의 수록도 필요하다. 따라서 근세뿐 아니라 현존 하는 작가나 학생들의 작품을 수록함으로써 현대 한국화의 경향을 파악하고 한국화를 인습이 아닌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학교 미술 교과서 한국화 주제별 도판 수는 표에서 보듯이 한국화 주제에 있어서 출판사 마다 학년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표현되고 있지만 사군자는 전체 4.76%밖에 비중이 없고 사군자에 관하여 다루지 않는 출판사도 있으므로 개정 교과에서는 재고하여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설문지를 통해 얻은 조사 분석

1.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별 중학교 미술교사 실태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의 5개 행정구별 중학교 미술교사 78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서신·메일을 통해 33명이 설문에 응답을 하였다. 조사인원의 42%가 설문에 응답하였고, 이는 미술교사 전체 119명중 2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학생의 경우 무작위로 설문지를 80매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 50명을 실태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구별로도 평균 27%에서 오차범위5% 내에 해당한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12.0을 사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백분비를 구하여 분포를 도표로 만들었다.

먼저 실태조사에 앞서 아래 도표에서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별로 미술교사의 인원과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전체교사를 광주 시 교육청 사이트의 2007년 기준 조사내용과 각 학교 홈페이지와 방문과 전화로 직접 조사해 <표-6>을 작성해 보았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내에 미술교사의 인원부족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에 배정된 미술교사의 비율과 미술교사 한분에 배정된 학급수와 학생 수의 비율과 전체 교사 중 미술교사의 비율을 조사해 보았다.

<표-6> 광주광역시 미술교사 실태 조사

행정구역	미술교사(명)	학교수	한학교당교사(%)	학급수	교사한명당학급수(%)	학생수(명)	교사한명당학생수(비율)	전체교사(명)	미술교사(%)	교사조사명수(명)	학생조사명수(명)
동구	9	7	1.28	112	12.44	3889	432	187	4.81	3	6
서구	27	14	1.92	365	13.51	14426	534	596	4.53	8	12
남구	19	14	1.35	314	16.52	12071	635	517	3.67	5	8
북구	37	26	1.53	603	15.07	23160	579	1005	3.98	9	13
광산구	27	20	1.35	470	17.40	17487	647	774	3.48	8	11
전체	119	81	1.46	1864	15.66	71033	597	3079	3.86	33	50

위 표에서 보듯이 광주광역시의 미술교사는 119명이고 북구가 37명을 차지하여 가장 많지만 학교 수의 비율로 보면 북구는 학교당 1.53명의 미술교사가 있다. 서구는 학교당 1.92명의 교사가 있어 학교당 평균 2명의 교사가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행정구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미술교사의 비율은 1.46% 밖에 안 되며, 한 학교당 미술교사는 2명이 채 되지 못 하고 1~2명이고 심지어 광산구의 경우 한분의 교사가 2군데의 학교를 겸임하여 가르치는 곳도 있었다. 한명의 교사에 배정된 학급 수는 평균 15.66학급이고, 광산구가 17.4학급, 다음 남구가 16.52학급의 비율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의 교사에 배정된 학생 수도 무려 평균 597명이고, 광산구 647명, 남구 635명으로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교사는 3,079명이고 미술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평균 3.86%밖에 안 되어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미술교사의 비율로 보와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동구와 서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며 다음으로 북구, 남구, 광산구 순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미술교사의 비율은 턱 없이 부

족한 편이어서 교사의 부담은 크므로 인원 보충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2.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

현행 실시되고 있는 미술과 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조사하여 창의적인 한국화 교육을 하기 위해 제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능력 정도 및 한국화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다.

둘째,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실시되는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과 지도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셋째, 한국화의 실기 지도 실태조사와 현행 미술 교과서의 내용이 미술 교육의 현장에서 한국화 지도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조사한다.

넷째, 한국화 교육을 위한 학교의 제반 시설 및 교구의 준비상태를 분석한다.

다섯째, 한국화의 감상영역에서 한국화의 비중과 한국화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표-7>미술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능력 정도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비 고
1. 선생님의 출신 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사범계 ② 비 사범계 ③ 자격 검정 ④ 기 타	22명 9명 1명 1명	66.7 27.3 3 3	
2. 선생님의 미술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화 ② 서양화 ③ 조소 ④ 공예 ⑤ 시각디자인 ⑥ 미술이론 ⑦ 기타	3명 12명 4명 2명 6명 4명 2명	9.1 36.3 12.1 6.1 18.2 12.1 6.1	
3. (한국화 전공이 아닌교사)한국화 수업 시 자신감?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자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 부족하다. ⑤ 매우 자신 없다.	1명 2명 13명 9명 4명	3.4 6.8 44.8 31 13.7	응답자수 (29명)
3-1 (한국화 전공)한국화 수업 시 자신감?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자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 부족하다. ⑤ 매우 자신 없다.	1명 3명	25 75	응답자수 (4명)
4. 한국화 연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한다. ② 필요하면 한다. ③ 참여하지 않는다.	12명 20명 1명	36.4 60.6 3	

미술교사의 출신 대학계열은 사범계열 출신이 22명인 66.7%로 가장 많았으며 비 사범계열 출신은 27.3%로 대부분 교사가 4년제 이상의 미술대학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으로는 서양화가 12명인 36.3%를 차지하고 이에 비해 한국화 전공은 불과 3명인 9.1%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한국화 전공 교사에 비해 타 전

공 교사의 경우 한국화 교육에 있어 '매우 자신 있다', '자신 있다' 항목이 3.4%와 6.8%밖에 되지 않고 한국화 전공 선생님이 9.1%로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한국화 교육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나타났다.

한국화 재교육을 위한 연수기회 있으면 참석여부의 질문에 '참여 한다', '필요 하면 한다' 가 36.4%와 60.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교사는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참석할 의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화 전공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전공교사를 늘리는 것이 한국화 교육의 지도에 실질적인 해결책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교사들의 한국화 연수기회 참여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의향과 부합하도록 제도적으로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과 한국화 교육연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타 전공 교사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타 전공 교사들도 이러한 한국화 연수 기회를 통해 한국화 학습지도시 자신감을 가지고 성의 있는 수업을 할 것이고 학생들도 관심과 흥미를 가져 한국화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표-8> 미술 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인식 정도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1. 미술 영역 중 한국화에 대한 관심 정도?	① 타 영역보다 매우 관심 ② 관심 있는 편 ③ 타 영역보다 관심 적음 ④ 전혀 흥미 없음	2명 11명 18명 2명	6.1 33.3 54.5 6.1
2. 한국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정도는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타 영역보다 매우 관심 ② 관심 있는 편 ③ 타 영역보다 관심 적음 ④ 전혀 관심 없음	2명 8명 21명 2명	6.1 24.2 63.6 6.1
3. 학생들이 한국화에 관심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① 한국화에 접할 기회 적음 ② 실기 교육 위한 용구 미비 ③ 한국화 이론 교육 미비 ④ 기타	7명 18명 6명 2명	21.2 54.5 18.2 6.1
14. 한국화 지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② 다양한 재료 사용의 시도 ③ 사춘기의 정서발달에 도움 ④ 기타	24명 3명 4명 2명	72.7 9.1 12.1 6.1

미술 영역 중 한국화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관심정도에 대한 질문에 '타 영역보다 관심 적음'이 각각 63.6%로 나타났고, 심지어 '전혀 관심 없음'도 각각 6.1%로 나타나, 한국화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심이 적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실기 교육에 대한 용구 미비', '한국화에 접할 기회 적음', '한국화 이론 교육 미비'가 각각 54.5%, 21.2%, 18.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 수업 시간부족 등이 있었다.

"한국화 지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이라는 답변이 72.7%로 가장 많았고 '사춘기의 정서발달에 도움'과 '다양한 재료 사용의 시도' 순으로 12.1%, 9.1%로 나타났다.

<표-9> 학생의 한국화 인식정도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
1. 한국화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① 매우 흥미 있다 ② 흥미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흥미 없다	1명 7명 33명 9명	2 14 66 18
2. 한국화를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전시회 행사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2회 이하 ③ 4회 이하 ④ 5회 이상	26명 19명 4명 1명	54 38 8 2
3. 한국화에 흥미가 없다면 그 이유는?	① 재료 준비가 불편하고 교구가 부족 ②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가 부족 ③ 평소 한국화와 접할 수 있는 시간 부족 ④ 표현 방법이 어려워서	17명 9명 8명 14명	34 18 16 28

한국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흥미정도에서 긍정적 답변은 불과 16%밖에 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흥미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흥미 부족으로 “한국화를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전시회 행사의 가본적인 있느냐”의 질문에 ‘2회 아하’가 38%를 차지했고, 절반이상인 54%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다. 한국화에 흥미가 없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재료 준비가 불편하고 교구가 부족’이 34%로 학생들이 한국화 용구 준비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어려워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가 부족’, ‘평소 한국화와 접할 수 있는 시간 부족’ 등이 각각 28%, 18%, 16%를 차지하여 흥미부족의 이유로 들었다.

<표-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
1. 2007년 미술 교육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많이 알고 있음 ② 알고 있음 ③ 조금 알고 있음 ④ 전혀 모름	1명 7명 19명 6명	3 21.2 57.6 18.2
2. 2007년 교육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과지도에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현행과 비슷함 ④ 전혀 없음	2명 17명 12명 2명	6.1 51.5 36.3 6.1

“2007년 미술 개정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조금 알고 있음’이 57.6%나 차지하고 있고 ‘전혀 모름’도 18.2%로나 차지하고 있어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데 아직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지도에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지 예상되는지 질문에 ‘조금 있음’이 51.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현행과 비슷’이 36.3%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 한국화 수업 시수(2007년 개정 교과 전망)

문 항	내 용	응 답 자 수			비 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	2학년 (%)	3학년 (%)
1. 연간 미술수업 중 한국화 수업에 대한 시간 배당은?	① 2시간 이하 ② 4시간 이하 ③ 8시간 이하 ④ 8시간 이상	20명 9명 3명 1명	21명 8명 3명 1명	4명 15명 13명 2명	60.6 27.3 9.1 3	63.6 24.3 9.1 3	12.1 45.4 39.4 6.1
2.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되면 귀 학교에서 알맞은 집중이수 제도는?	①제7차교육과정 ② 대규모 학교 ③ 중규모 학교 ④ 소규모 학교	18명 2명 9명 4명			54.5 6.1 27.3 12.1		
3. 위의 시간 배당은 2007년 개정교육에 따라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① 증가 한다 ② 감소 한다 ③ 비슷함 ④ 잘 모르겠다	18명 2명 12명 1명			54.5 6.1 36.4 3		

연간 미술 수업 중 한국화의 시간배당을 학년별로 조사한 결과 1학년 2학년의 경우 '2시간 이하'가 각각 60.6%, 63.6%로, 3학년의 경우 '4시간 이하'가 4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미술의 경우 주 시간 배당이 1·2학년의 경우 1시간이고, 3학년의 겨우 2시간이므로 시간상 한국화 시간 배당이 많은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학습계획에 있어 총 시간 배당은 1·2학년은 32시간 3학년의 경우 64시간임에 비하여 한국화는 턱 없이 적게 편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한국화 교육을 전혀 실시 않는 학교조차 있을 정도로 심각하였다.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되는 교과 집중 이수제의 운영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54.5% 현행과 비슷하게 운영할 것으로 예상했으면 '중규모 학교', '소규모학

교', '대규모 학교' 모형 순서대로 각각 27.3%, 12.1%. 6.1%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 시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현행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대답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총 이수 시간을 기준으로 학년별, 교과별 수업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 운영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소규모 학교의 경우 겸임 교사를 활용한 학교 간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교과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 한국화 시간 배당의 변화에 대한 의견에서 '증가 한다'의견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시간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12> 한국화 이론과 실기비중(2007년 개정 교과 전망)

문 항	내 용	응답자수	비 율(%)
1. 한국화 지도 시 이론과 실기의 비중은?	① 이론에 비중을 둔다 ② 실기에 비중을 둔다 ③ 이론50% 실기 50%	5명 11명 17명	15.2 33.3 51.5
2.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이론과 실기의 비중 변화는?	① 이론의 비중 증가 ② 실기 비중 증가 ③ 현행과 비슷함	3명 20명 10명	9.1 60.6 30.3

한국화 지도 시 이론과 실기비중은 '이론에 비중을 둔다'는 의견이 15.2%. "실기에 비중을 둔다"에 33.3%로 실기비중이 약간 높지만 전체적으로 "이론과 실기를 50%씩 한다"의 의견이 51.5%로 이론과 실기 비중이 비슷한 걸로 나타났다. 2007년 개정교육에 따라 이론과 실기의 비중의 변화에 대해 '실기 비중 증가'에 60.6%로 나타났으면 집중이수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간 효율성의 증대로 실기 비중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걸로 판단된다.

<표-13> 한국화 실기 지도 실태 조사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
1. 실기 지도와 평가에서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의 비중은?	① 7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이하	1명 3명 20명 5명 4명	3 9.1 60.6 15.2 12.1
2. 한국화의 실기지도는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십니까?	① 수묵화 ② 수묵담채화 ③ 채색화 ④ 기타	9명 16명 5명 3명	27.3 48.5 15.1 9.1
3. 한국화 실기 지도 시 어떤 소재를 가장 많이 선택하십니까?	① 사군자 ② 인물화 ③ 산수화 ④ 정물화 ⑤ 추상화 ⑥ 기타	4 2 9 15 2 1	12.1 6.1 27.3 45.4 6.1 3
4. 한국화 실기 지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 교과서상의 그림을 보고 그림 ② 상상으로 그리게 한다 ③ 참고 작품을 모사 ④ 풍경과 정물을 직접 보고 그림 ⑤ 교사의 체본을 보고 그림	11명 4명 5명 9명 4명	33.3 12.1 15.1 27.3 12.2
5. 한국화 실기 지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① 학교의 실기여건 및 시설부족 ② 학생들의 수업준비 상태 불성실 ③ 교사의 비전공 분야 ④ 기타	11명 15명 4명 3명	30.3 45.5 12.1 9.1

회화의 실기 지도와 평가에서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의 비중은 '30%이상 50%미만'이 60.6%로 가장 많았으면 '50%미만'이 88.9%나 차지하고 있어 한국화의 실기 지도는 심각할 정도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실기 지도 시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는 '수묵담채화'로 4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묵화' 27.3%로 편중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채색화'는 15.1%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여러 가지 표현기법을 가르쳐 주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적 자유를 표현 하도록 하는 실기 지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실기 지도의 방법으로 '교과서상의 그림을 보고 그리게 한다'와 '풍경과 정물을 직접 보고 그리게 한다'가 각각 33.3%, 27.3%로 실기 지도 방법으로 산수화 중심의 풍경과 교과서 작품을 많이 참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대부분교사가 한국화가 비전공 분야이므로 학생들의 가르치는 입장에서 표현기법이나 재료의 사용 용법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 실기지도에 있어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수업 준비 상태 불성실'이 45.5%로 가장 많았고, '학교의 실기 여건 및 시설부족'이 30.3%, '교사의 비전공 분야'12.1%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문제와 학생들의 흥미 부족으로 실기지도의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한국화 실기수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생들의 용구 준비 개선이 필요하겠지만 학교의 실기 여건을 위한 제반조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14> 현행 교과서 실태분석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율(%)
1. 현행 교과서에서 한국화 이론에 대한 분량은?	① 너무 많다 ② 많다고 생각 한다. ③ 적당 하다. ④ 조금 부족하다. ⑤ 너무 부족하다.	1명 3명 16명 11명 2명	3 9.1 48.5 33.3 6.1
2. 미술교과서상의 한국화 내용의 난이도?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적당하다	2명 8명 23명	6.1 24.2 69.7
3. 한국화 교육 시 교과서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8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30%이하 ⑤ 전혀 사용하지 안 는다	3명 11명 17명 2명 0명	9.1 33.3 51.5 6.1 0
4. 향후 개정 미술교과서상 한국화 교육에 있어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작품에 대한 해석 보충 ② 한국화 그리는 방법 구체적 제시 ③ 도판의 크기 확대 ④ 기타	10명 8명 13명 2명	30.3 24.2 39.4 6.1

미술교과서상 한국화 내용에 대한 분량 정도의 질문에 ‘적당하다’가 48.5% 차지하여 가장 많지만 ‘조금 미흡하다’의 답변도 33.3%나 차지하고 있다. 한국화 내용의 난이도 질문에도 ‘적당하다’가 69.7%로 차지하고 있지만 ‘조금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의 비중도 전체 33.3%나 차지하고 있어 개정교과서에서는 미흡한 점에 대한 보안과 내용의 난이도 면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화 교육 시 교과서 사용 빈도는 '30% 이상 50% 미만'이 51.5%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전체 49.4%를 차지하여 교과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개정 미술교과서 상 한국화 교육에 있어 개선할 점으로 '도판의 크기 확대'가 39.4%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교과서 도판의 숫자가 많은 만큼 크기가 작아 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 보충'이 30.3%, '한국화 그리는 방법 구체적 제시'가 24.2%로 개정 미술교과서상 개선할 점으로 나타났다.

<표-15> 중학교 현장의 한국화 교육 여건

문 항	행 정 구 역	① 매우충분	② 적당한편	③ 부족하다	④ 절대부족
1. 한국화 수업을 위한 용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 구	0	1명	1명	1명
	서 구	1명	3명	3명	1명
	남 구	0	2명	2명	1명
	북 구	0	2명	5명	2명
	광산구	0	1명	5명	2명

	행 정 구 역	① 미 술 실	② 일반 교실	③ 기 타
2. 한국화 실기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 지십니까?	동 구	1명	2명	
	서 구	5명	3명	
	남 구	2명	3명	
	북 구	4명	5명	
	광산구	2명	6명	

한국화 수업을 위한 용구의 준비 상태를 광주광역시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국화 용구 준비 상태는 '매우 충분'한 곳은 13.2%로 '적당하다' 의견이 37.5%를 차지하고 있고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견도 50%를 차지하지만 다른 행정 구역에 비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용구 준비 상태의 행정구역별로 부족하다는 부정적의견의 비율로 보면 남구 62.5%, 동구 66.6%, 북구 77.7%, 광산구 87.5%로 순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실기수업의 미술실 이용 빈도의 비율도 행정구역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63%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북구 44.4%, 동구 33.3%, 남구 40%, 동구 33.3%, 광산구 25% 순으로 나타나 서구가 한국화 용구 상태나 학교 시설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한국화 감상 영역 학습 실태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
1. 서양화에 비해 회화 감상 영역에 있어서 한국화의 비율은?	① 7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미만	2명 6명 19명 4명 2명	6.1 18.2 57.5 12.1 6.1
2. 한국화 감상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 작품의 활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① 7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미만	6명 9명 15명 2명 1명	18.2 27.3 45.4 6.1 3.1
3. 교과서상 감상 학습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요?	① 도판 크기 작음 ② 학생들의 흥미 부족 ③ 선생님의 비전공 분야 ④ 내용의 빈약	15명 9명 2명 6명	45.5 27.3 6.1 18.1

구체적인 한국화 용구 준비상태를 살펴보면 담요의 경우 '5장 이하'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벼루의 경우도 '10개 이하' 전체 45% 이상 붓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이런 준비상태도 전혀 없는 학교도 있었으며 시청각 교재가 있는 학교도 불과 20%밖에 안 되어 한국화 교육 학습과 실기수업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화 감상 영역에서 서양화에 비해 한국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30%이상 50%미만'이 전체 5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감상 영역에서도 '50%미만'이 69.6%로 차지하고 있어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 감상 영역에서 교과서 작품의 활용도 조사에서는 '30%이상 50%미만이' 45.4%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전체 45.5%나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교과서를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과서상 감상 학습에서 '도판 크기 작음'과 '학생들의 흥미 부족', '내용의 빈약'이 각각 45.5%, 27.3%, 18.1% 순으로 감상 학습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기타 의견으로 '선생님의 비전공 분야'라서 애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17> 한국화 교육의 개선점

문 항	내 용	응답자 수	비 율 (%)
1. 바람직한 한국화 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시설 확충	9명	27.2
	②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흥미 유발	5명	15.2
	③ 교사의 한국화에 대한 능력 향상	1명	3.1
	④ 한국화 실기 수업 시 용구 준비	10명	30.3
	⑤ 한국화 지도에 따른 이론적 참고 자료 확충	5명	15.1
	⑥ 한국화 수업시간의 확대	3명	9.1

바람직한 한국화 교육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질문에 '한국화 실기 수업 시 용구 준비'가 30.3%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학교 시설 확충',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흥미 유발', '한국화 지도에 따른 이론적 참고 자료 확충', '한국화 수업시간의 확대', '교사의 한국화에 대한 능력 향상',의 순서대로 각각 27.2%, 15.2%, 15.1%, 9.1%, 3.1% 순으로 나타났다.

제5장 한국화 학습 교육의 지도 방법

미술 수업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계획 실천할 때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며 미술 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개방적이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미술 교육을 해야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이 신장 될 것이다.

교사-학습 계획에 있어 학습 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한국화 교육의 학습 계획도 전통미술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미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가지고 계승·발전 하도록 학습 계획을 설정한다. 또 우리나라 전통미술뿐만 아니라 풍속, 고유의 명절 등 고유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 폭 넓게 지도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학습 내용은 미적 체험, 표현, 감상의 각 영역별 특성을 살려 학습 목표에 적합하게 선정하되, 각 영역별 학습 내용 간의 관련성, 학년 군별 학습 내용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학습 과제의 성격, 과제 해결을 위한 기본 절차와 방법, 사전 지식의 활용, 학습 활동, 피드백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학습 내용과 방법 및 수업의 시기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수성, 행사, 계절, 학생 수, 시설 및 용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한다. 이러한 교사 학습 계획에 따라 미술 교육 지도안뿐만 아니라 한국화에 대한 이해를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로 하여금 전통미를 발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내면화 과정에까지 이르도록 지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술 교과는 시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교과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매체인 슬라이드, 비디오, 멀티미디어, 인터넷 자료 등 다양한 매체 자료의 개발과 함께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한국화의 경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다양한 매체 자료 활용과 더불어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화집, 명화집, 미술관, 박물관의 방문 등으로 대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1절 교사 학습 방법

한국화의 체계적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에게 한국화에 대한 개념과 특징 등의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교과서등 여러 자료를 활용한 이론 교육이 필요 하다. 그리고 실기교육을 하기 전에 수묵화에서는 먹과 종이에 대한 지식과 채색화에서는 물감의 색에 대한 이해처럼 학습자에게 기본적인 용구 사용방법을 익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학습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몇 가지 교수-학습 방법으로 직접 교수법, 반응 중심 학습법, 창의적 문제 해결법, 귀납적 사고법 등이 있다.[36]

◎ 직접 교수법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시범을 보이며 지도하는 방법으로, 주로 재료나 용구를 처음 접할 때, 그 사용법과 안전상 주의할 점, 다양한 표현 기법을 지도할 때 사용한다.

문제 인식 ⇨ 설명 및 시범 ⇨ 질의응답 ⇨ 연습 활동 ⇨ 작품 제작 ⇨ 정리 및 발전

◎ 반응 중심 학습법

미적 체험이나 감상 능력을 기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상과 현상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명료화하고 자신의 반응에 따른 행동에 대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도록 한다.

반응 형성 ⇨ 반응 명료화 ⇨ 반응 심화 ⇨ 정리 및 발전

36) 박소영, “초등학교미술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14.4

◎ 창의적 문제 해결법

미술과의 모든 내용 영역은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다. 미술 수업에서 창의성은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능력, 아이디어 창출 능력, 표현 능력, 직품 분석 및 새로운 해석이나 판단을 내리는 능력 등으로 나타난다.

문제 인식 ⇨ 아이디어 탐색 ⇨ 아이디어 정교화 ⇨ 아이디어 적용 ⇨ 종합 및 재검토

◎ 귀납적 사고법

미적 체험과 감상 영역의 미적 인식 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 객관적 사실 또는 원리가 있다는 전제로 이를 추론해 가는 과정을 통해 미적 인식 능력을 향상시킨다. 귀납적 사고법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사고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변의 자연 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 미술 작품에서 미적 사고를 형성하고 미적 원리나 특징을 추론하도록 한다.

문제 인식 ⇨ 관계 탐색 ⇨ 개념 발견 ⇨ 개념 적용 ⇨ 정리 및 발전

다음 교수 학습 방법으로 학생과 교사의 상호 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시범, 강의, 개별 작업 및 협동 작업, 게임, 현장 견학, 극화, 토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지적 호기심과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과 개방적 질문을 적극 활용한다. 또 정보 통신 기술과 사진,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의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37]

37) "교육과학기술부, op. *cit.,* pp.219-222."

제2절 내용 영역별 지도

1. 미적 체험 영역

첫째,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적인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중학교 미적 체험 영역에서는 인간이 만든 시각 문화 환경에 나타나있는 자연 환경의 특징과 서로 간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있는지 체험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그 지방의 문화재나 유적지. 즉 광주광역시의 경우(병천사, 화담사, 광주향교, 지산재, 환벽당, 포충사, 빙월당, 무진고성지, 월계동, 장고분, 금곡동, 제철유적, 증심사, 약사암, 무양서원 등) 유적지를 방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 환경이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자연의 특징이 조형물에 응용된 경우를 찾는 등 자연환경과 시각 문화 환경의 조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스로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계승 발전하도록 스스로 지각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조형미'로 한정되어 있던 개념을 2007년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도시 공간과 영상물을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새 교육 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TV나 비디오, 영화, 광고, 컴퓨터 게임, 간판 등의 시각 문화 환경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재미를 느껴 청소년 시기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학습자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전달하려는 이미지의 주체가 무엇이며, 영향력과 이미지의 주체 등 다양한 사고를 하도록 질문을 통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표현 및 감상 영역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고 교과 간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미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다.

2. 표현 영역

첫째,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조력자의 입장에서 창의적 발상을 돕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발상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동기를 높여야 한다. 한국화 교육에 있어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적 발상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연상법, 브레인스토밍법, 설문법 등이 있다. 연상법은 교사가 한국화 즉 수묵화와 채색화 등 학습자에게 직접적이며 감각적인 생생한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거나 전통미술에 대한 학습자 기억 속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브레인스토밍법은 주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디어를 공동으로 내놓는 집단 사고방식인데 학습자에게 한국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제를 제시하여 한국화의의의 수묵화와 채색화 등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지도법이다. 설문법은 교사의 질문으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훈련하는 방법으로 '왜', '그리고', '어째서', '까닭은' 등 한국화와 전통미술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호기심, 흥미 등을 유발하고 자긍심을 심어주고 교사와 학생들의 학습을 통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표현 재료와 용구의 선택 및 활용 방법에 대한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안전에 유의한다. 수묵화의 경우 용구에 대한 간단한 특징을 가르친 후 사용법을 설명하는데 용구에 대한 이해와 붓을 잡는 방법이나 수묵의 기본이 되는 자세와 선과 먹에 따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채색화 지도도 용구의 특징 및 사용방법에서 물감의 색과 채색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 한다.

셋째, 주제 표현,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가 표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도록 한다. 표현 내용의 특성에 따라서 조형 요소와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표현 방법을 선택하는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 수묵화의 경우 주제를 선정하고 표현함에 있어 기본적인 표현 기법인 구륵법, 몰골법, 백묘법과 삼원법인 평원법, 고원법, 심원법에 대해서 교과서와 자료를 보여주고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쉽게 설명한 후 기초적인 기법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

추어 표현하도록 지도 한다. 이러한 기초 기법을 바탕으로 학교 주변의 풍경을 보고 느끼며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채색화의 경우도 기초적인 표현기법으로 아교 반수와 밀색, 칠기 등 목탄을 이용해 칠해 화판에 옮긴 후 채색화 방법인 농담법에 관하여 쉽게 설명하고 표현 주제로 인물의 눈, 코, 입에 대한 비례와 구조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지도해 준다.

넷째,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하여 표현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점검하고 다음 활동에 반영하도록 지도한다.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해 좋은 점, 배우고 싶은 점, 느낀 점, 표현 의도 및 특징적인 표현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생각해봄으로서 반성적 사고와 함께 개성적인 표현이나 창의적인 표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3. 감상 영역

감상 영역에서 우선 미술작품의 지역별, 시대별, 양식별 특징을 이해하고, 미술사와 관련된 지식과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등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미술 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바 각 지역의 유·무형의 전통 문화재를 견학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유적지의 방문을 통해 그곳의 문화적 가치를 생각해 보고 현대 생활에서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발상 지도나 작품 감상을 할 때 전통 문양이나 색채 등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첫째, 학습 내용과 관련된 미술가, 미술 작품, 미술사 관련 정보와 일화 등을 활용하여 감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감상에서 한국화를 교실이나 학교의 작당한 공간을 이용하여 전시함으로서 학습자에게 한국화를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한국화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므로 인터넷을 통해 작가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안내 책자, 미술

잡지 등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한국화 작품을 보여줘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면 한국화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감상 관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안목을 가지게 한다. 새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해석을 통해 자신의 견해와 함께 비평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화 작품의 감상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거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하여 한국화 작품에 대한 종합적 가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과 판단에 대하여 교사와 학습자, 또 학습자들 상호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종합적 안목을 기르게 한다.

셋째, 작품은 성, 인종, 민족, 지역, 시대, 양식별로 비교 감상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지금까지 서양화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하여 지금부터 한국화 위주의 교육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는 미술 작품에서 인간과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며, 미술사에 대한 이해는 그 문화의 이해이다. 한국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는 문화를 비교·감상하여 폭넓은 시각과 생각을 가지게 된다.

넷째, 미술 용어를 이해하고, 감상문 쓰기, 발표 및 토론 등에 활용한다. 미술 용어는 미술 학습에서 사용하는 미술 사조, 미술사, 표현 형식, 표현 기법, 조형 요소와 원리, 미술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용어를 지칭한다. 한국화의 경우 학습자의 입장에서 용어가 친숙하지 않아 어렵다는 인식부터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채화, 수묵화, 채색화 등 표현 방법 및 기법 관련 용어와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와 같은 표현 대상 관련 용어와 조형 요소와 원리 관련 용어 등 전반적인 용어를 쉽게 이해시켜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화와 관련된 용어를 알고 활용함으로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감상과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가능한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람하도록 한다. 한국화 작품은 교과서 말고도 학습자 입장에서 쉽게 보고 감상할 기회가 적으므로 정기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관람하게 하여 학생들에게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한다.

여섯째, 전통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통 미술 자료와 문화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전통 문화란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 문화로써 의미를 가지며 한 민족이 오랜 동안 지속시켜온 삶의 양식이면 현재 문화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문화를 만들게 하는 토대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습자에게 한국화를 가능한 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화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수용을 통하여 한국화를 세계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제6장 결 론

미술 교과 교육은 생활 속에서 미적감수성과 시각적 조형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느끼는 심미적 태도를 통해 인격형성과 정서의 함양과 창의적 표현 능력을 신장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전통 미술 교육은 우리 문화이해뿐만 아니라 비판적 시각과 수용으로 다른 나라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화를 세계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화 교육은 이런 목표에 부합하여 우리의 전통 미술과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하며 내면적 정신세계 표현을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표현 능력의 신장에 기여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한국화보다는 서양화 교육 위주로 편중되어 학생들은 한국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편이며 실질적으로 한국화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수업진행으로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논문은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화 인식 정도, 수업 시수, 교과서 영역 분석, 한국화 교육 여건 상태 등 조사하였으며, 한국화 교육의 지도 방법에 있어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서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화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화를 전공한 교사는 극히 소수여서 미술 영역 중 한국화에 대한 관심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 수업 중 한국화 수업에 대한 시간 배당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화 실기지도를 위한 학교의 실기여건 및 용구 준비상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 또한 한국화 실기를 위한 준비 상태는 불성실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미적체험 영역에서 한국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참고 도판의 경우 도판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록된 작품들이 조선 시대의 회화 작품이 많아 한 시기의 작품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미술 교사의 경우 한국화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많으므로 제도적으로 정기적인 연수나 재교육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연간 미술 수업 중 한국화의 시간배당은 '2시간 이하', '4시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극히 적으므로 한국화 지도 시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한국화 지도를 위한 학교의 실기여건 및 학생의 준비가 불성실 하므로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기본적인 용구 시설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보안하도록 개정 교육과정에는 도판의 크기의 확대와 다양한 해설과 표현기법에 대한 내용 확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미술교육에 있어 학생들에게 적적한 수업 방법을 제시하여 한국화를 교육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줌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길러 줄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한국화 지도 방법과 재교육을 통한 자기 계발을 하고 한국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여 학생들에게 한국적인 미를 재발견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술교육은 한 시대의 정신과 사회적인 문제를 표현하는데 국한 되지 않고 현재의 문화를 반영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주는 문화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한국화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역할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점과 바람직한 한국화 지도를 위한 수업방식을 제시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에게 한국화에 대한 다양한 체험, 표현, 감상 활동을 통해 창의적으로 미술 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單行本)

김순영 등, 『조선 미술사』, 서울:학민사, 1987.
김홍희, 『한국화단과 현대미술』, 서울:눈빛, 2003.
노경상,『한국화 백문백답』, (서울 : 錦湖文化, 1995.)
노영자, 이인숙,『중학교 미술1학년 교사용 지도서』, 서울:교학사, 2000.
류병학, 『이것이 한국화다:일랑의 현대진경』, 서울:다트북스, 2002.
박용숙, 『한국화 감상법』(서울:대원사, 1996).
박용숙, 『한국미술사 이야기』, 서울:예경, 1999.
안취준, 『한국회화의 이해』, 서울:시공사, 2000.
이원복, 『회화-한국美의 재발견』, 서울: 솔, 2005.
이태호, 『조선후기회와의 사실정신』, (서울 : 학고재, 1996.)
유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 서울:학고재, 1998.
정병모,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서울:다할미디어, 2001.
조요한, 『한국미의 여명』, 서울:열화당, 1999.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서울:학고재, 2001.
최몽룡 등, 『한국미술의 자생성』, 서울:한길아트, 1999.

계속간행물(繼續刊行物)

“미술과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13]2007.7.31.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 1994.6.10.
“미술과 교육과정 해설 (Ⅳ)," 『교육부』, 1999.8.25.
“민족문화대백과24”,『한국정신문화연구원』, (웅진출판사, 1994).
박소영, “초등학교 미술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02.14.4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Ⅳ)", 『교육과학기술부』, 2008.4.1.

학위논문(學位論文)

김정아, “중등 미술교육에서의 한국화 지도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석사논문, 단국대학교, 2005.

김정애, “중등 미술 교과서의 한국화 내용 연구: 감상활동을 중심으로”, 교육대학원석사논문, 공주대학교, 2003.

배성환, “중학교 미술교육에서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과 지도방법 연구”, 교육대학원석사논문, 건국대학교, 2002.

이지은, “한국화 실기교육에 관한 연구”, (교육대학원석사논문, 용인대학교, 2003).

조현숙, “중학교 미술교육에 있어서 효과적인 한국화 지도방안 연구” (교육대학원석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2005).

설 문 지 (교 사 용)

안녕하십니까? 미술교육의 일선에서 학생지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교 한국화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바쁘신 중이지만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자료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임 주 리 드림

※ 선생님의 생각과 같은 난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교과 영역 중 교사의 한국화 능력 정도**

1. 선생님의 출신 지역구는 어디이십니까?
① 북구 ② 동구 ③ 서구 ④ 남구 ⑤ 광산구

2. 선생님의 출신 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사범계 ② 비 사범계 ③ 자격 검정 ④ 기타

3. 선생님의 미술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한국화 ② 서양화 ③ 조소
④ 공예 ⑤ 시각디자인 ⑥ 미술이론 ⑦ 기타

4. (한국화 전공이 아닌 교사의 경우)선생님께서 한국화 수업 시 자신감은?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자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 부족하다. ⑤ 매우 자신 없다.

4-1 (한국화 전공한 교사의 경우만 답해주세요)한국화 수업 시 자신감은?

① 매우 자신 있다. ② 자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자신 부족하다. ⑤ 매우 자신 없다.

5. 교사를 위한 한국화 연수 기회가 있다면 참여하시겠습니까?

① 참여한다. ② 필요하면 한다. ③ 참여하지 않는다.

***미술교과 영역 중 한국화 교육의 인식정도**

6. 선생님의 미술 영역 중 한국화에 대한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 이십니까?

① 타 영역보다 매우 관심이 많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타 영역보다 관심이 적은 편이다 ④ 전혀 흥미가 없다

7. 한국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타 영역보다 관심이 많다 ② 관심이 있는 편이다

③ 타 영역보다 관심이 적은 편이다 ④ 전혀 관심이 없다

8. (학생들이 한국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생각 하시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한국화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② 한국화 실기 교육을 위한 용구 미비

③ 한국화 이론 교육의 미비

④ 기타( )

9. 한국화 지도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에 있다.

② 다양한 재료 사용의 시도에 있다.

③ 사춘기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

④ 기타(　　)

***한국화 교육 지도 실태에 관한 조사(2007년 개정 교과 전망)**

10 2007년 미술 교육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매우 많이 알고 있음　② 알고 있음　③ 조금 알고 있음　④ 전혀 모름

11. 2007년 교육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교과 지도에 달라진 점이 있을꺼 같습니까?

① 많이 있음　② 조금 있음　③ 현행과 비슷함　④ 전혀 없음

12. 연간 미술 수업 중에서 한국화 수업에 대한 시간 배당은 몇 시간 입니까?

------ 1)1학년(　)　2)2학년(　)　③3학년(　)--------

① 2시간 이하　② 4시간 이하　③ 8시간 이하　④ 8시간 이상

13. 위의 시간 배당은 2007년 개정 교육에 따라 한국화 수업은 현행과 비교 하여 어떻게 될 거라 생각 하십니까?

① 증가 한다　② 감소한다　③ 비슷함　④ 잘 모르겠다

14. 밑에 표에서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실행되는 7차 교육 개정 수업 시수 중 귀 학교에서 선택하기에 알맞은 집중이수 제도는?

학 년		7-1	7-2	8-1	8-2	9-1	9-2
제 7 차 교육과정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대규모학교	0시간	0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중규모학교	0시간	0시간	3시간	3시간	1시간	1시간
	소규모학교	0시간	2시간	0시간	2시간	2시간	2시간

① 7차 교육 과정 ② 대규모학교 모형
③ 중규모 학교 모형 ④ 소규모학교 모형

15. 한국화 지도 시 이론과 실기의 비중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 이론에 비중을 둔다. ② 실기에 비중을 둔다.
③ 이론 50% 실기50%

16. 위 한국화 지도 시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이론과 실기의 비중에 현행과 비교하여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이론의 비중 증가 ② 실기 비중 증가 ③ 현행과 비슷함

17. 현행 교과서에서 한국화 이론에 대한 분량은?
① 너무 많다 ② 적당 하다 ③ 부족하다

18. 회화의 실기지도와 평가에서 서양화와 비교하여 한국화의 비중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7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이하

19. 한국화의 실기지도는 어느 분야에 비중을 두고 실시하십니까?

① 수묵화 ② 수묵담채화 ③ 채색화 ④ 기 타

20. 한국화의 실기 지도 시 어떤 소재를 가장 많이 선택하십니까?

① 사군자 ② 인물화 ③ 산수화 ④ 정물화 ⑤ 추상화 ⑥ 기타( )

21. 한국화 실기 지도의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① 교과서상의 그림을 보고 그리게 한다.

② 상상으로 그리게 한다.

③ 참고 작품을 모사 하게 한다.

④ 풍경과 정물을 직접 보고 그림

⑤ 교사의 체본을 보고 그리게 한다

22. 한국화 실기 지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의 실기 여건 및 시설부족

② 학생들의 수업 준비 상태 불성실

③ 교사의 비전공 분야 때문

④ 기타( )

***현행 교과서 실태 분석**

23. 미술교과서 상의 한국화 내용에 대한 분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너무 많다 ② 많다고 생각 한다 ③ 적당하다

④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 한다 ⑤ 너무 부족하다

24 미술교과서 상의 한국화 내용의 난이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조금 어렵다 ③ 적당하다

25. 한국화 교육 시 교과서 사용 빈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8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30%이하 ⑤ 전혀 사용하지 안 는다

26. 향후 개정 미술교과서상 한국화 교육에 있어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① 작품에 대한 해석 보충

② 한국화 그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기타( )

***중학교 현장의 한국화 교육 여건**

27. 한국화 수업을 위한 용구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적당한 편이다 ③ 부족하다 ④ 절대 부족하다

28. 한국화 수업을 위한 용구 중 귀교에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벼루( )개 ② 붓( )자루 ③ 한국화 판( )개

④ 담요( )장 ⑤ 기타( )

29. 한국화의 실기 수업은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십니까?

① 미술실 ② 일반 교실 ③ 기타( )

30. 선생님께서 한국화 교육을 위한 시청각 교재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① 화집( )권 ② 컴퓨터용 자료( )점 ③ 비디오테이프( )개

④ 슬라이드( )점 ⑤ 기 타( )

***한국화 감상 학습에 있어서**

31. 서양화에 비해 회화 감상 영역에 있어서 한국화의 비율은?

① 70%이상 ② 50%이상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미만

32. 한국화 감상 학습에 있어서 교과서 작품의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70% ② 50% ③ 30%이상 ④ 15%이상 ⑤ 15%미만

33. 교과서상 감상 학습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요?

① 감상하기에는 도판 크기가 작다. ② 학생들의 흥미 부족

③ 선생님의 비전공 분야 ④ 내용이 빈약

***한국화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34. 바람직한 한국화 교육을 위해 개선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체크 가능)

① 학교의 시설 확충

② 학생들의 한국화에 대한 흥미 유발

③ 교사의 한국화에 대한 능력 향상

④ 한국화 실기 수업 시 용구 준비

⑤ 한국화 지도에 따른 이론적 참고 자료 확충

⑥ 한국화 수업시간의 확대

35. 한국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문 외에 하고 싶은 의견이나 향후 개정교육과정에서 개선하여 반영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실기영역(　　)

감상영역(　　)

평가영역(　　)

기타　(　　)

*바쁘신 가운데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문 지 (학 생 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학교 한국화 교육의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는 것으로 성의 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학생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자료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임 주 리 드림

※ 다음 질문에 본인의 생각과 같은 난에 체크하시오.

***미술교과 영역 중 한국화의 흥미도와 태도**

1. 현재 학생은 몇 학년 입니까?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2. 한국화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① 매우 흥미 있다 ② 흥미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흥미 없다

3. 흥미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① 재료 준비가 불편하고 교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②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해 기초가 부족해서

③ 평소 한국화와 접할 수 있는 시간 부족으로

④ 표현 방법이 어려워서

⑤ 기타 ( )

4. 한국화를 전시하는 미술관이나 전시회 행사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2회 이하 ③ 4회 이하 ④ 5회 이상

5. 한국화 실기시간에 준비물 준비와 작품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요?

① 준비물을 잘 챙겨오며 최선을 다해 작품에 임한다.

② 준비물을 잘 챙겨오는 편이나 작품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③ 준비는 잘 해오지 못할 때 가 많지만 항상 열심히 작품에 임한다.

④ 준비는 잘 못해오고 작품의 완성에 있어서도 성의가 없다.

6. 체계적인 한국화 수업을 받을 기회나 학교시설에 한국화 수업을 위한 준비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참여할 수 있다.

③ 이전과 차이가 없다. ④ 흥미가 없어 참여할 수 없다.

***한국화의 인지실태 및 수업에 대한 질문**

7. 한국화의 개념 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① 정확히 알고 있다. ② 수업을 통해 알고 있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전혀 모른다.

8. 중학교 한국화 수업에서 실기수업과 이론 수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한가요?

① 이론 비중이 높다 ② 실기에 비중이 높다

③ 이론50% 실기50% ④ 기 타( )

9. 한국화를 그려 본적이 있나요?

① 그려 본적이 없다 ② 2회 이하

③ 5회 이하 ④ 6회 이상

10. 중학교에서 한국화 실기수업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① 체본을 받아 그렸다. ② 참고작품을 모사하여 배웠다.

③ 직접 사생하여 그리면서 배웠다. ④ 상상으로 그리게 하여 배웠다

11. 한국화를 그려 본적이 있다면 느낌은 어떤가요?

① 용구 사용이 쉽고 서양화 보다 재미있어 자주 그리고 쉽다.

② 용구 사용이 힘들지만 서양화 보다 재미있어 자주 그리고 쉽다.

③ 한국화에 대한 느낌은 좋지만 그리기는 싫다.

④ 그리기 어렵고 재미가 없다.

12. 한국화 그리기 수업을 한 후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① 준비물이 복잡하다. ② 그리는 방법이 복잡하다.

③ 화선지에 그리기 힘들다 ④ 기 타( )

13. 한국화를 그려 본 적이 없다면 한국화 수업을 받은 후에 자신 있게 그려볼 의향이 있는가요?

① 자신 있게 자주 그려볼 의향이 있다. ② 그려볼 의향은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전혀 그리고 싶지 않다.

14. 한국화 실기수업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① 수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별로 없다.

② 한국화 용구 준비하기가 불편하다.

③ 수업을 하기에 실기 실이 따로 없다.

④ 기 타( )

15. 한국화 수업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바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① 교과서 이외의 참고 자료를 많이 보여 주었으면 좋겠다.

② 한국화 그리는 구체적인 제작 방법에 대한 상세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③ 한국화 수업의 시간이 너무 짧다.

④ 준비물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⑤ 기 타( )

16. 한국화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본 설문에 응해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미술교육	학 번	2006809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 임 주 리 한문 : 任 珠 璃 영문 : Ju-Lee Lim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934-5				
연락처	E-MAIL : lch110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한국화 교육의 실태분석을 통한 지도법 연구 -광주광역시 중학교 중심으로- 영문 : A Study of Teaching Method of The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on Actual State of Korean Painting -Focusing on middle school in Gwangju provinces-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08년 12 월 일

저작자: 임 주 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